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b>보도자료</b>	
	2025년 4월 23일(수)	이정훈 노동안전보건국장 010-7380-193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 작업중지권 쟁취!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민주노총 결의대회

### 1. 개요

- 일시 :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45분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결의대회
- 진행 흐름
  - 13:00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사전 행사 - 산재 사망 노동자 위령제
  - 14:00~15:00 본집회 (서울고용노동청)
  - 15:00~16:30 행진, 주요 살인기업 규탄 및 다이 인  
(한화 오션 -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 CJ 택배- KT )
  - 16:30~16:45 마무리 집회 및 퍼포먼스 : 학교급식 위기 해결 농성장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2. 대회 순서

- ① 본 집회 : 서울고용노동청
  - 사회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시간	내용	발언
13:50	대오 정비	사전 영상, 구호
14:00	추모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14:05	결의대회 기조와 투쟁 결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4:10	산재 피해자 유족 발언	최현주 아리셀 가족협의회
14:13	기조영상	
14:17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자 참여 산안법 개정 투쟁 결의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산재노동자 권리 보장 쟁취 투쟁 결의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14:28	공연	류금신 문화 노동자
14:35	안전한 일터가 보장되는 다시 만날 세계를 향한 청년 연대 발언	이민지 한국외대 대학생
14:40	행진 준비 및 시작	

② 주요 산재사망 기업 규탄 약식 발언 : 행진로 (한화오션→현대건설→CJ택배→KT)

내용	발언
한화오션: 중대재해 다발. 하청 노동자 노동권 보장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다수 선정. 고속도로 붕괴등 연속 중대재해 발생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CJ대한통운: 과로사,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중대재해	윤중현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KT (광화문 사거리): 노동자 자살.	KT 산재노동자 장인

③ 마무리 집회 : 광화문 청사 앞 (학교급식 위기 해결 농성장)

- 사회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시간	내용	발언
16:30	규탄 발언	민태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
16:35	결의문	문경주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본부장
16:45	정리발언 및 폐회	

[붙임]

1. 투쟁결의문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3. 아리셀 가족협의회 최현주 발언문
4.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 발언문
5.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발언문
6. 한국외대 대학생 이민지 발언문
7. 금속노조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발언문
8. 건설산업연맹 김희재 사무처장 발언문
9. 서비스연맹 윤중현 수석부위원장 발언문
10. KT 산재사망 노동자 장인 발언문
11.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발언문
12. 공공운수노조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발언문

## [붙임]1. 투쟁결의문

### 광장의 민주주의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터의 민주주의로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자 참여 산안법 개정 투쟁에 나서자

생명 안전의 후퇴와 개악을 일삼던 윤석열을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파면하고 맞이한 4월의 봄이지만, 죽고 또 죽는 일터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것처럼 윤석열이 밀어 부쳤던 산안법,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국민의 힘은 3월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입법발의했고, 헌법재판소에는 위헌 심판 제청 건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불기소와 무혐의 처분을 남발하고 있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한 화물안전운임제, 건설노동자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학교급식 폐암등 직업병 인정을 확대하는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과 인력 충원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도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은 흔적조차 없고, 교섭을 거부하는 박순관은 보석으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며 교섭조차 거부하여, 피해유가족들의 투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1988년 15살 문송면 노동자 수은중독과 951명 직업병 원진레이온 투쟁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자와 피해자 유족들은 싸우고 또 싸워왔다.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라’ 라는 4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 정신은 오늘 한화 오션 고공농성, 학교급식 폐암 대책을 요구하는 농성, 전국 곳곳에서 전개되는 투쟁 속에 살아있다.

윤석열을 파면시킨 광장의 민주주의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위험작업, 폭염, 폭우, 감정노동 등 위험작업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 강화로 예방 사업이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산재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확실한 감소 대책이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생명 안전을 지키는 일터의 민주주의다.

윤석열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해 왔던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의 실질적인 보장,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투쟁, 단체협약 체결 투쟁, 건강권 쟁취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 진행되는 조기 대선이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로 바꾸는 투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21대 대선을 맞아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산재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하고, 전면 적용하라
- 사고와 과로사 막는 인력 기준 법제화하라
- 모든 노동자의 제대로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 보장하라

2025년 4월 23일

작업중지권 쟁취!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 **[붙임]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우리는 매년 4월이면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이태원에서 시민을 지키지 않은 윤석열, 노동자 안전을 공격한 윤석열을 과면시킨 올해는 더욱 각별한 의미를 담아 오늘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입니다. 세계의 노동자들이 ‘죽은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라’는 정신으로 함께 싸우는 날입니다.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4월2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치열하게 투쟁한 성과이지만, 생색내기 행사나 치르는 기념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계속 투쟁해야 합니다.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멈추지 않는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어떤 것보다 노동자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작업의 속도보다, 상품의 질보다, 비용의 절감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의 안전은 외면당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자본의 태도 때문이고, 숨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집값 때문에 싱크홀을 숨기는 법원과 정부의 작태 때문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자본과 정부의 위험천만한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계엄과 내란으로 시민을 위협에 빠트린 윤석열을 멈춰 세웠듯, 노동자가 위험하면 작업을 중단할 수 있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정주노동자보다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가진 자보다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더 많이 죽고, 다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사회도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화물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를 보장해서 도로의 안전을 지킵시다. 건설 현장에서, 학교 급식실에서, 조선소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리없이 희생되는 노동자 시민을 지킵시다. 윤석열 퇴진광장을 열어낸 민주노총이, 윤석열 없는 세상에는 산업재해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나섭시다. 나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찬 투쟁에 나섭시다.

## **[붙임]3. 아리셀 가족협의회 최현주 발언문**

아리셀 참사로 남편을 잃은 최현주입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고용노동부, 국회, 박순관 자택을 다니며 투쟁했습니다. 10월부터는 에스코넥 앞에서 천막농성도 벌였습니다.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합당한 배보상을 촉구했습니다.

그사이 검찰과 노동부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리셀뿐 아니라 에스코넥에서도 군납비리가 있었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리하게 업무를 시켰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가족들은 아직도 억울하고, 아직도 참담합니다. 박순관과 박중언의 만행이 드러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주 수원지방법원을

오가며 그들의 과립치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아리셀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남편이 미세발열 배터리를 2~3일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배터리를 쌓아둔 것이 마치 남편의 잘못인 양 주장합니다. 원인을 정밀하게 찾아서 개선해야 한다는 남편의 의견은 쪽 빼고 말입니다. 사측 노무사는 아리셀이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면 몸을 갈아서라도 지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박순관과 박중언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배터리의 위험성도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사업을 확장한 죄, 위험성을 알리는 내부 경고를 무시하고 방치한 죄, 직원들과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죄. 박순관이 책임을 진다면 저 또한 무슨 책임인지는 몰라도 지겠습니다.

박순관은 현재 거리를 확보하고 있고 변호인들과 맛있는 갈비도 먹으러 갑니다. 곧 1주기가 다가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2024년 6월 24일에 머물러 있는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4.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 발언문**

매년 대한민국에서는 2400~2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사망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던 크게 변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2024년 금속노조에서도 20건의 사고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2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물론 뇌심혈관계질환 및 출퇴근 중대재해는 빠진 수치입니다.

금속노조의 중대재해 대응 투쟁이 나뉘 하고는 있지만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을 줄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투쟁만으로는 중대재해 사망자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를 좀 줄여보겠다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지만 만들때부터 누더기 처벌법으로 전락하였고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도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실제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만약 제가 자본가라도 이렇게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자본가들의 관리 감독 소홀로 노동자들이 사망하더라도 검찰에서 봐주기 기소하고 법원에서 벌금 몇백만 원으로 판결이 난다면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 몇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면 어느 자본가가 비싼 비용으로 설비를 개선하고 안전장치를 보완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자본의 이윤추구만을 생각하는 자본가에게는 지속적인 영업을 통한 이윤추구는 용납되지 않고 자본가들은 감옥 간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조금이라도 사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현장에서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합시다. 금속노조부터 중대재해 관련해서 단호한 투쟁으로 현장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는 각오로 투쟁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함께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 **[붙임]5.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발언문**

2016년 휴대폰 3차 하청공장에서 일하던 이진희씨가 출근 4일만에 쓰러졌습니다. 힘겹게 깨어났지만 앞은 보이지 않았고 뇌는 손상됐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현순씨가 진희씨에게 말했습니다.

‘진희야 눈이 다 나오면 벚꽃보러 가자’ 10번째 벚꽃이 떨어지던 4월 17일, 이진희씨가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노동자의 눈을 멀게 한 건 휴대폰 부품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메탄올이었습니다. 메탄올이 에탄올보다 썩기 때문, 노동자의 눈과 뇌가 메탄올보다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메탄올의 위험을 알려주지 않았고, 누구도 메탄올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업체에 부과된 벌금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시력을 빼앗은 건 메탄올이 아닙니다. 3월 25일 강동구 도로를 달리던 라이더가 싱크홀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새벽 2시 까지 주7일 일한 라이더였습니다.

서울시는 싱크홀 붕괴 위험 정보를 담은 ‘안전지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 때문에 비공개했습니다. 땅위를 달리는 플랫폼노동자의 목숨이 땅값보다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죽인 건 싱크홀이 아닙니다.

‘아빠가 산불 끄는 데 힘드니까 커서 꼭 아빠 옆에서 도와줄게’ 공공운수노조 산림청 지회 특수진화대원의 4살 아들이 한 말입니다. 자랑스러운 아빠를 도와줘야 할 국가는 아빠의 머리에 곰팡이가 핀 헬멧을 씌워 불타는 산으로 보냈습니다. 부서진 헬멧을 교체해주지 않아 본드로 붙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시청 교육만 받고 현장에 투입된 대원은 경험많은 팀장을 만나 운 좋게 살아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창녕의 노동자를, 낡은 헬기를 몰다가 추락한 조종사를 죽인 건 산불이 아닙니다. 1993년 188명의 태국 노동자를 죽인 것도 불이 아니라 자본이 굳게 잠근 탐욕의 문입니다. 동지들 일터의 위험 앞에서는 동료들과 도망치는 겁쟁이가 됩시다. 도망치는 노동자를 가두려는 자본 앞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 싸우는 투사가 됩시다. 93년에 열지 못한 죽음의 문이 우리의 일터 곳곳에 있습니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가 죽음을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 **[붙임]6. 한국외대 대학생 이민지 발언문**

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민주노총이 열어가는 안전 노동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음에 발언에 앞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7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그중

3년은 핫도그를 튀겼고, 또 3년은 야간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핫도그를 튀기다가 손가락을 기름에 담근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병원에 안 가도 된다면, 화상연고를 주셨습니다. 화상연고를 바르고 라텍스 장갑을 낀 뒤 다시 일을 했습니다. 기름 연기가 올라올 때 마다 데인 부분이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는 일주일에 세 번씩 밤을 샐습니다. 밤 새고 나면 약국에서 피로회복제를 하나 사서 마시고 다음 날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어느 날은 졸면서 눈을 떠보니 차가 다니는 도로 앞이었고, 걷다가 졸아서 가로등에 이마를 부딪혀 흑이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노동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됩니다. 건강을 담보로 한 노동으로 삶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급식노동자가 폐암에 걸리고, 택배 노동자와 화물노동자가 잠을 줄여가며 노동하다 죽어가고, 지하철을 수리하다 돌아가시고, 유해물질을 만지다 희귀암에 걸리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삶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서,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그 길을 앞장 서서 열어가시는 민주노총 선배님들의 결심에 존경을 담아, 저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붙임]7. 금속노조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발언문**

작년 한화오션에서 심혈관계 질환을 포함해서 하청노동자 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올해도 하청노동자 두 분이 산재로 돌아가셨습니다. 폭발로 죽고, 익사로 죽고, 떨어져 죽고, 끼어서 죽고, 블록에 깔려 죽고, 더워서 죽고, 장비에 치여 죽고, 오랜 노동으로 아파서 죽습니다.

원청은 하청노동자가 죽을 때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안전벨트 매라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민병통치약입니까.

중대재해가 나면 회사는 회사 컴퓨터 속에 넣어 뒀던 산재 예방 대책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기다렸다는 듯 작업중지를 풀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사고가 나면 회사는 안전벨트 잘 매라고 하고 노동부에 자료 제출하고 작업중지 풀고, 이렇게 하청노동자는 자신의 목숨하나 스스로 지키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일하던 현장에서 본 산재 사망 사고만 수십 건입니다. 이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을 중단시키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눈치보지 않고 위험하면 작업 거부하고, 위험 작업이나 구역의 작업을 중단 시킬 수 있는 권리가 하청노동자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산재사망사고는 하청노동자들입니다. 하청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이 있어야 그래야 회사는 하청노동자 눈치 봐서라도 안전에 돈을 투자할 것이고, 스스로 알아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하청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이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내 목숨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맡긴다는게 말이 됩니까? 작업중지권은 생명유지권입니다. 일하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하청노동자도 작업중지권 쟁취합시다. 목숨은 하나다

작업중지권 쟁취하자.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작업중지권 쟁취하자!

### **[붙임]8. 건설산업연맹 김희재 사무처장 발언문**

건설 현장은 중대재해 발생율이 가장 높은 죽음의 현장입니다. 점점 대형화되는 건설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년 4월 민주노총과 제단체에서 함께 선정하는 ‘최악의 살인기업’에 가장 많이 선정된 기업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년간 최악의 살인기업에 총 네 번이 선정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이 가장 최근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것이 지난 2022년인데요, 그전 해인 2021년 한 해 동안 총 6명의 하청노동자가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2007년과 2012년, 2015년에도 현대건설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현대건설 현장, 그리고 같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무려 네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2월 25일 안성의 고속도로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50여 미터 아래로 붕괴하며 그 아래에 있던 노동자가 매몰되어 네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일 뉴스에서 거대한 교량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영상을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사고 뒤 전국의 현장을 멈췄다고 했지만, 또 다시 2주 만에 평택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3월 14일에는 서울 제기동 현장에서 해체하던 건물에 깔려서, 다음 날인 15일에는 파주 현장에서 콘크리트 잔여물에 맞아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에서 얼마나 더 많은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하여 이른바 후진국형 재해로 노동자를 죽일 겁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매년 4월이면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할 것입니다. 현대건설 말고도 매년 건설사가 순위에 오릅니다. 건설현장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지 않고,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연맹도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습니다.

### **[붙임]9. 서비스연맹 윤중현 수석부위원장 발언문**

윤석열 탄핵 이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뿌리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택배사들을 대표해서 이곳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우리들의 요구와 입장을 밝힙니다.

2019년부터 연이어 발생했던 스물여섯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이면에는, 주당 74시간 노동이라는 택배사들의 탐욕스러운 이윤추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가신 쿠팡 야간 배송 노동자 고 정슬기님의 근무 시간도 주 평균 63시간이었고, 이러한 택배 노동자들의 처지는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쿠팡이 새벽배송, 당일배송, 365일 배송을 앞세워 3년 만에, 점유율 1위로 올라서면서, CJ 대한통운도, 한진도, 주7일 배송, 365일 배송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추진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택배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자본의 논리 앞에서,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택배 노동자들과 배달 라이더들, 가전 설치 노동자들과 마트 온라인 배송 노동자들과 그리고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다가오는 6월이 두렵기만 합니다. 장시간 야외 노동에 헬멧 사이로 스며드는 버스의 뜨거운 열기와 찜통 같은 학교 급식실에서 마스크도 벗지 못하는 일상은, 하루하루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로사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의 차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차별 없이,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대선에만 눈이 먼 자가 노동부 장관입네 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동안,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다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돈보다 사람이 먼저’ 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택배사를 대표하는 이곳 CJ 대한통운 앞에 와있습니다. 모든 일터에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붙임]10. KT 산재사망 노동자 장인 발언문**

저는 지난 구조조정으로 운명을 달리한 익산 KT 직원의 장인입니다.

저희 사위는 재능도 많고 마음씨도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가에 와서 장인, 장모가 고생한다며 불편한 곳을 확인하고 타일 시공부터 에어컨 설치까지 하는 사위였습니다. 사위의 흔적은 곳곳에 남았는데 사위만 없고 저희 부부는 집에 들어갈 때 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년의 겨울과 봄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아내가 양쪽 무릎 수술 후 섬망증이 왔고 가족 모두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선뜻 나서 딸 집에 있는 게 장모님이 좋지 않겠냐며 모시고 갔고 저희 아내는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사위는 가끔 집에 들러 장모와 밖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데이트도 해주는 사위였습니다. 이런 사위를 이제 만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사위를 이런 선택으로 내몰았는지 비통하고 애통합니다. 저희 딸은 한 달 이상 밥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들게 갔을 사위를 생각하며 힘듦을 알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죽고 싶다고 말을 많이 했지만 남은 가족들이 돌아가며 살려고 살아가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위가 없어 모두가 힘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죽음 또한 본인의 선택이라고 할건가요? 자회사로 갈지 잔류할지 선택을 했으니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하실 건가요? 잔류자는 어느 팀으로도 못 가게 막아놓고 다른 팀이랑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무너졌을 겁니다. 사위는 회사 일도 잘했으며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재택근무에도 집에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며 매일 회사에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재택근무를 하며 편하다고 합니다.

사위는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케이티라는 회사를 사랑했고 그 회사의 직원이라는 걸 자랑스

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억울함과 내 삶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란다는 유서를 남기게 만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위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편하길 바랍니다.

### **[붙임]11.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발언문**

값싸게 함부로 쓰이는 학교비정규직을 정부는 공무원이라고 호칭합니다.

울산 쪽에서 지진 났을 때, 학교 교무실 공무원은 끝까지 전화 받으라고 대피하지 말라는 지  
시를 받았습니다.

학교급식실 공무원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암, 골병에 죽고 다치고 진통제 근육이완  
제 약을 먹으며 일하니, 여성노가다 사업장으로 찍혔습니다. 전국에서 1,748명의 정원을 못  
채우고 몸을 갈아 급식이 나갑니다. 중도퇴사율 60%가 넘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되  
고 방학 때 월급이 없어서 공무원의 60% 수준 임금인데 방학때 다치면 안되니 취업규칙에  
겸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값싸고 함부로 쓰이는 비루한 인간, 비정규직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죽어도 차별받는 설움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합니다. 노조와 함께 종합대책안을 마  
련하고 무너지는 학교급식을 살려내라!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소식을 들었는지, 조리실무사 조합원의 아이가 묻더랍니다. '엄마 손  
도 휘었어?' 2025년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70년대 여공들처럼 일합니다. 아이들에게 떳떳한  
부모로 어른으로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승리합시다.

### **[붙임]12. 공공운수노조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발언문**

단식농성 3일 차입니다. 끼니를 끊고, 마음을 잊습니다. 우리는 퇴진광장에서 '사회대개혁'  
을 함께 외쳤습니다. 학교 안 모든 노동자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  
취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학교 급식실은 고강도 노동과 폐암으로 인력 충원도 안되어 신음하고 있고, 기후 위기로 무  
더웠던 지난여름이 우리 생애 가장 시원했던 여름으로 기록될 거라고 합니다. 곧 다가올 폭  
염에 환경미화, 시설, 당직 선생님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특수, 과학,  
사서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 직종으로 분류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급식노동자들은 조리흡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조리흡을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의 범주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학교현장의 산재,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산재는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고 환기시설이 개선되어야 하고, 저임금 구조를 철폐  
해야 합니다.

요구합니다. 수년째 반복되는 급식실 결원사태 해결하고, 급식실 인력을 충원하라! 더 이상  
학교서 아프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현업직종 확대하라!

학교급식실은 학생들의 건강한 한끼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학교는 모두가 안전해야 하는 공  
간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드는 투쟁을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